

전국 유일 일본 목조신사...광주 송정공원 금선사에 단죄문

광복 75주년

광주시, 친일잔재 청산 박차
원효사 송화식 부도비 등
6곳 21개 잔재물도 정비



13일 광주시 광산구 송정공원 금선사에서 일제 식민통치 잔재물에 대한 단죄문 제막식이 열렸다. 송정공원 금선사는 일제 식민지 시대 당시 내선일체 강조 등 조선인의 정신개조를 위해 일본이 1941년 조성한 신사로 현재 전국에서 유일하게 남아 있는 목조건물이다. /최해배 기자choi@kwangju.co.kr

제75주년 광복절을 앞두고 광주시가 전국에서 유일하게 남아 있는 목조신사인 송정공원 금선사 입구에 단죄문을 설치하는 등 친일잔재 청산 작업을 이어갔다.

광주시는 13일 오전 일제 신사인 송정공원 금선사에서 일제 식민통치 잔재물에 대한 단죄문 제막식을 개최했다. 친일 잔재 청산을 위한 이번 단죄문 제막식은 지난해 8월 광주공원 사적비문에 이어 두 번째다.

이번 제막식에는 이용섭 광주시장과 장휘국 시교육감, 김삼호 광산구청장, 광복회원, 친일잔재청산 전담기구 회원 등이 참여했으며 기념사, 단죄문 낭독, 일제 잔재물에 대한 단죄문 제막, 친일잔재물 현장점검 등의 순으로 진행됐다.

제막식 국민연례에서는 '꿈꾸는 예술단'과 함께 일제 강점기에 항일 무장 투쟁을 하며 독립군이 불렀던 '애국가'를 불러 눈길을 끌었다.

제막식이 열린 송정공원 금선사는 일제 식민지시대 당시 내선일체 강조 등 조선인의 정신개조를 위해 일본이 1941년 조성한 신사로, 현재 전국에서 유일하게 목조 건물 자체가 남아있다.

이번에 설치된 단죄문에는 민족문제연구소에서 발간한 친일인명사전에 등재된 자료를 토대로 친일 인사의 행적 등이 기록됐다.

광주시는 올 들어 ▲원효사 송화식 부도비·부도탑 ▲나릿재 유아숲 공원 서정주의 '무등을 보며' 시비 ▲사직공원 인근 양파정에 걸린 정봉현·여규형·남기운·정운수 현판 ▲세하동 송화각에 설치된 신철군·남

계룡 현판 ▲광주학생 독립운동 기념회관 지하동굴 ▲송정공원 내에 잔존하고 있는 참계, 신목, 참도, 석등통기단, 대웅전 앞계단, 신주사무소, 배전, 나무야미타불탑 등 6곳 21개 잔재물에 단죄문을 설치했다.

광주시는 이번 단죄문 설치를 계기로 과거 대한민국 100년을 돌이켜 보고, 미래 대한민국 100년을 준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용섭 시장은 "국내에서 유일하게 남아 있는 신사건물인 송정공원 금선사 등의 잔재물에 단죄문을 설치한데 이어 내년부터는 사유지에 남아있는 친일 잔재물에 대해

소유주와의 협의를 거쳐 청산작업을 이어가겠다"며 "역사를 바로 세우며 정통하게 풍요로운 미래를 열어가는 위대한 여정에 150만 광주시민이 함께 해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광주시와 전남도는 제75주년 광복절을 맞아 15일 각각 청사 내외서 경축식을 연다. 광주시는 이날 오전 9시 30분 광주독립운동기념탑 참배에 이어 10시 시청 대회의실에서 사회적 거리두기 지침에 따라 참석 규모를 축소한 경축식을 진행했다. 경축식에선 고 강석홍 선상에 대통령 표창을, 최은정(여·80), 이재춘(76), 천해수(63)씨 등 3명에게 시장표창

을 수여한다. 이날 낮 12시에는 민주의 종에서 타종식 행사도 열린다.

전남도는 이날 오전 10시 도청 왕인실에서 제 75주년 광복절 경축행사를 개최한다. 행사는 국민연례, 기념사, 독립유공자 시상, 경축사, 만세삼창, 기념공연 순으로 진행된다. 독립유공자 고 김중현 선생에게 애장갑, 고 장영재 선생에게 건국포장, 고 이두주 선생에게 대통령 표창을 수여한다. 코로나 19 확산 방지를 위해 참석 인원을 최소화하고 장마철 날씨를 고려해 행사는 실내에서 개최한다. /박진표 기자 lucky@kwangju.co.kr /김형호 기자 khh@kwangju.co.kr

광주에서 또 코로나 '깜깜이 확진자'

연휴기간 대규모 확산 우려

광주에서 감염 경로가 명확하지 않은 코로나19 지역 감염 확진자가 또다시 발생해 방역 당국이 긴장하고 있다. 임시발 휴일이 낀 연휴기간동안 인구 이동도 많아질 것으로 보여 대규모 확산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나온다. 이에 따라 광주시 등 방역당국은 마스크 쓰기와 손씻기 등 개인 방역 지침을 철저히 지켜줄 것을 강조하고 나섰다.

13일 광주시에 따르면 이날 광주 남구에 거주하는 20대가 확진 판정을 받았다. 이 남성은 광주 219번째 확진자로 분류됐다. 아직 기존 지역감염과의 관련성이 확인되지 않고 감염경로가 불확실한 '깜깜이 환자'다. 시는 휴대전화 GPS, 신용카드 사용 내용 등을 확인, 감염경로와 추가 동선·접촉자를 파악하고 있다.

앞서 지난 12일에도 지역감염 1명을 포함한 2명의 추가 확진자가 발생했다. 40대 A씨는 코로나19 진단 검사에서 양성 판정을 받아 광주 217번째 확진자로 등록됐다. 서구 치평동에 거주하는 A씨는 두통과 인후통 등 증상이 나타나자 서구 보건소를 찾아 검사를 받았다. A씨의 감염 경로는 아직 파악되지 않았다.

218번째 확진자로 등록된 베트남 국적의 10대 B군도 코로나19 진단 검사에서 양성 판정을 받았다. B군은 한국 유학을 위해 입국한 뒤 소방학교에서 격리 중 확진

돼 이동 동선은 없다.

최근 광주에선 감염경로가 확인되지 않는 '깜깜이 환자'가 잇따라 나와 조용한 전파가 우려되는 상황이다.

광주시 관계자는 "생활속 사회적 거리두기를 유지하기 위해선 사람이 많이 모이는 장소 방문을 자제하고, 개인위생 수칙을 철저히 지키는 방법 밖에 없다"면서 "느슨한 방역 의식으로 집단 감염이 발생할 경우 또 다시 일상생활이 통제되는 2단계 사회적 거리두기로 돌아갈 수 밖에 없는 만큼 3일간의 연휴동안 방역지침을 꼭 따라주길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본)도 "최근 수도권에서 소규모 집단감염이 이어지고 있고 지역적 분포도 넓어지고 있는 상황"이라면서 "다음 주 임시공휴일 지정으로 인해 인구이동도 많아질 것으로 보여 어떤 여파가 있을지 긴장하고 있다"고 말했다.

전국적으로는 수도권을 중심으로 코로나19 확산세가 다시 거세지는 양상을 보이면서 이날 일일 신규 확진자 수는 이를 연속 50명대를 기록했다. 해외유입 사례는 줄었지만 지역발생 환자가 급증한 영향으로 전체 신규 확진자 규모가 커졌다.

중앙방역대책본부는 이날 0시 기준으로 국내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56명 늘어 누적 1만4770명이라고 밝혔다. 이날 들어 신규 확진자 수는 20~40명대를 오르내렸지만, 전남(54명)에 이어 이를 연속 50명대에 머물렀다. /박진표 기자 lucky@kwangju.co.kr

광주시, 대중교통 마스크 미착용자 고발키로

300만원 이하 벌금 가능

광주시는 "긴 장마와 무더운 날씨에 따라 대중교통을 이용할 때 마스크 착용이 느슨해지는 것을 예방하기 위해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은 운수종사자와 이용객을 강력 단속한다"고 13일 밝혔다.

이번 단속은 버스과 도시철도도 마스크 착용이 제대로 지켜지고 있는 반면, 택시의 경우 주로 심야시간에 상권이 밀집한 지역 위주로 마스크 미착용자의 승차 거부가 제대로 지켜지지 않고 있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광주시는 이번 단속에서 적발된 운수종사자와 이용객에 대해서는 행정조치를 준수하는 시민과의 형평성을 고려하고 사회적 경종을 울리는 차원에서 고발 조

치할 계획이다.

지난 3일 사회적 거리두기가 1단계로 하향 전환됐지만, 대중교통 마스크 착용 의무와 행정조치는 그대로 유지돼 버스, 택시, 도시철도 운수종사자와 이용객은 반드시 마스크를 착용해야 한다.

위반사건 300만원 이하 벌금이 부과될 수 있고, 위반자가 코로나19 확진판정을 받게 되면 입원·치료비와 방역비 등 각종 비용에 대한 손해배상도 청구할 수 있다.

허익배 광주시 교통건설국장은 "심야에 마스크를 쓰지 않고 택시를 타려는 승객과 운수종사자가 다름이 늘고 있다"며 "앞으로는 시민 안전을 최우선으로 마스크 착용 의무를 위반한 시민은 무관용 원칙에 따라 고발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박진표 기자 lucky@kwangju.co.kr

광주·전남, 의료계 집단 휴진 대비 비상진료대책 마련

응급의료기관 운영 등

국민적 우려와 정부의 거듭된 만류에도 대한의사협회가 14일 집단 진료 거부에 나선다.

이에 광주시와 전남도는 비상진료대책 상황실 등 비상진료체계를 구축하고 진료 공백을 최소화한다는 방침이다.

광주시는 "14일 의료계 집단 휴진에 대비해 응급 의료기관과 공공의료기관, 병원

급 이상 의료기관을 중심으로 비상진료체계를 유지하겠다"고 13일 밝혔다.

광주시는 지난 12일부터 시와 자치구에 비상진료대책상황실을 운영하며, 휴진 의료기관 모니터링, 응급실 운영 의료기관 등에 대한 점검 등 비상진료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 시는 전 의원급 의료기관 955 곳을 대상으로 7일 진료명령을 발령했으며, 14일 하계휴가 등으로 인한 휴진 예정 의원급 의료기관은 230여 곳으로 파악됐

다. 광주시는 또 응급의료기관 20곳, 병원급 이상 104곳서 비상진료로 정상 운영되므로 시민 진료에 큰 불편이 없을 것으로 예상되지만, 의원급 의료기관 진료를 위해 방문 시 미리 진료 여부를 확인해줄 것을 당부했다.

전남도는 22개 시·군과 긴밀한 협조로 의료공백 최소화를 위한 준비를 다하고 있다. 의료원을 포함한 응급의료기관 37개소, 응급의료시설 13개소는 24시간 응급실 운

영을 강화하고, 도내 보건기관 모두 비상진료체계를 유지한다. 또 관역응급의료센터와 비상연락체계를 유지하고, 재난의료지원차량 출동태세를 확립하는 등 응급의료 지원 체계도 완비했다.

임시공휴일(17일)이 이어지면서 최대 4일간 휴진이 예상됨에 따라, 고혈압·당뇨 등 만성질환자들이 사전에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권고했다.

자세한 정보는 시 및 자치구 홈페이지, 응급의료포털(www.e-gen.or.kr), 응급의료정보제공 앱에서 확인할 수 있다.

/박진표 기자 lucky@kwangju.co.kr /김형호 기자 khh@kwangju.co.kr

부실채권 못받은 돈 회수

판결문, 공증·공사대금·각서·운송료·차용증
거래장부·계약서·입금 내역·녹취 등 각종채권상당

▶ 절대 선수금, 출장비용 없음 ◀
(재산조사비, 법적비용은 필요에 따라 발생될 수 있음)

- 채무자 재산, 신용·주거래은행·차량등 파악
- 실거주지 파악 가능
- 법인회사 부도시 회수 가능

▶ 국가신용관리사가 직접관리 ◀

선수금만 주고 돈도 못 받고 계산분들이 많으나
당사는 여러분의 재산을 회수한 후 수수료를 받고 있습니다.
당사는 내재산이다라는 마음으로 항상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NAVER 채권추심 회수왕

24시간 상담가능

풍수·시주 수강생 수시모집 및 상담

기운을 바꾸는 풍수~!

주책, 사업장은 물론 산소까지, 있는 그대로의 상태에서
보다 좋은 터전으로 만들 수 있습니다.

개강 (6개월 과정)

- 일 시: 2020. 9. 15(화) 오후 7시
- 장 소: 심미운기풍수지리학회 교육장 (무등로478-1: 산수오거리 → 무등산 방향 입구 우측 2층)
- 수강료: 풍수+시주 15만원(매월)

공개강좌 (무료)

- 일 시: 2020. 9. 8(화) 오후 7시.
- 장 소: 상동(심미운기풍수지리학회교육장)
- 대 상: 누구나 (선착순 00명)

컨설팅(전문상담) 분야

- 천기비법 대 공개
- 기감풍수 비법 교육
- 분묘, 이장, 납골당 및 수목장 수백파 중화
- 음택, 양택의 풍수 감정 및 비보
- 사업(장사) 부진의 풍수적 진단
- 사주 교육 및 감정(사주, 궁합, 택일 등)
- 작명(신생아, 개명, 상호 등)

심미운기풍수지리학회
010-3146-6370 / 010-2246-1508

상속채권자와 수증자에게 청구 신고 최고

광주가정법원 해남지원 2020년 12 상속재산관리인선
임사전에 관하여 상속재산관리인은 민법 제1056조 1항의
규정에 의하여 무연고 수증자 사망자 유류물품 처분 권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다 음 -

1. 상속재산관리인 성명: 고송현
주소: 전남 해남군 해남읍 중앙 1로 391번지
2. 피상속인 성명: 손승익
등록기준지: 전남 보성군 노동면 금로리 440번지
최후주소: 전남 해남군 해남읍 중앙 1로 391번지
생년월일: 1968년 2월 18일 생
사망일시 및 장소: 2019년 9월 29일 해남유류물품
위 피상속인의 상속인 손승익이 사망하므로 원만 상속재
전과 유류물 분배가 있었음 2020년 10월 31일까지 그 재
권 또는 유류물 분배를 신청할 것
만약 위 기간내에 신고가 없을 때에는 그 재권을 법원에서
제외한다.

2020년 8월 14일
망속유류상속재산관리인 고송현
(061-536-3640)

ABC협회인증
호남 최대 발행 부수

독자와 함께 걸어온 길 68년

광주일보

광주일보 문화예술매거진
세나

광교문의 (062)227-9600
신문구독 (062)220-0551
예향구독 (062)220-0550

문화회관후문 시내버스승강
08:00 * 다음카페 광주고고
파트레킹 ☎ 010 6294 2678,
010 3821 9090

8월22일(토)
▲광주호산회 8월22일(토)
거제 대통령영양선 저도 망
봉산 트레킹, 풍암동 롯데마
트 7주차장 출발 06:30, 롯데
백화점 07:00, 예술회관 후문
07:15 * 다음카페 광주호산
회 ☎ 010 4621 2166, 010 6702
9796

8월29일(토)
▲광주호산회 8월29일(토) 거
항 월성계곡 서출동류 물길
트레킹, 풍암동 롯데마트 7주
차장 출발 06:30, 롯데백화점
07:00, 예술회관 후문 07:15
* 다음카페 광주호산회 ☎
010 4621 2166, 010 6702 9796